

The Media Korea

Email : themediak@gmail.com Tel : 021-5579-6569 광고문의 : 0858-9060-0962, 0815-1066-5868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출시한 경남관광상품을 이용한 인도네시아 관광객이 지난 21일 경남을 방문했다.

조꼬위 대통령, 아시안게임에 남북 정상 초청... 8월 제3국 회담 가능성

인도네시아 정부가 오는 8월 자국에서 열리는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8월 18일~9월 2일)에 남북한 정상을 동시에 초청했다고 여권 관계자가 26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4월 27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정상회담 직후 조꼬 위도도(통칭 조꼬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남북한 대사를 인도네시아 대통령궁(므르데까궁)으로 초대했다”며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남북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만남은 4월 30일 진행됐으며, 김창범 주 인도네시아 대사과 안광일 북한 대사가 참석했다고 한다.

다른 소식통은 “조꼬위 대통령은 남북한 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시안게임 때 인도네시아를 함께 방문해 달라고 초청한 것으로 안다”며 “남북한 모두 외교 경로를 통해 보고를 받았고, 정부는 문 대통령의 인도네시아 방문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3국인 인도네시아에서 남북 정상 간의 만남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남북은 2000년과 2007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데 이



어 지난 4월 27일과 5월 26일 각각 판문점 평화의집과 통일각에서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이 조꼬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들일 경우 제3국에

서의 접촉은 처음으로 이뤄지게 된다.

남북은 판문점 선언(4월 27일)을 통해 올가을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다. 그

러나 지난달 26일 판문점 통일각에서 번개 정상회담을 했고, 최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가을 이전에 약식으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

다”고 했다. 일각에선 강 장관의 이 발언이 조꼬위 대통령의 초청을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다.

남북은 지난 18일 체육회담을 열어 인도네시아 아시안게임에 공동으로 입장하고, 일부 종목에서 단일팀을 구성키로 했다. 양 정상이 조꼬위 대통령의 초청을 받아들인다면 아시안게임 개막식 또는 폐막식에 일정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다만 김 위원장이 조꼬위 대통령의 초청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또 문 대통령의 하반기 대외 일정이 상당 부분 정해져 있고,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도에 따라 인도네시아 방문이 유동적이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전언이다.

인니 정부, 투자세액공제(Tax Allowance) 대상 업종 300개로 확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투자금액 소득공제(Tax Allowance) 대상 업종을 기존의 145개에서 300개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정사업군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납세자 또는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납세자 대상의 투자

금액 소득공제를 규정한 시행령 ‘2016년 제9호’의 개정령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2일자 보도에 따르면 경제조정부 이스칸다르 차관(거시 경제·금융 조정 담당)은 “수출 지향형 산업과 노동 집약형 산업에 인센티브

를 부여해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감가상각기간 단축 등 기존의 우대 내용은 변경되지 않는다.

정부는 정령 ‘2016년 제9호’에 따라 종이 및 제지, 철강, 지질탐구, 천연가스정제



업 등 71개 특정사업군과 카카오 재배, 유제품 등 77개 특정지역에서 사업을 다루는 업종에 투자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했다.

JOUN DOOR

Flooring, Skirting

PT. DONG SEO Furniture
Doors and Furniture Spesialis

Furniture DONGSEO

Kawasan Industri Manis II, Jl.Palm Manis IV No.61
Gandasari, Jatiuwung, Tangerang Banten - Indonesia

Marketing contact :
☎ +62 021 591 5637
✉ dongseowood@yahoo.co.id

Our Product :

- Doors & Frame
- Furniture Oustom
- Interior Molding
- Flooring
- Skirting
- Paint finish
- + Wood Veneer
- + Duco
- Laminate Finish
- + HPL
- + PVC
- Alumunium door & Frame

동남아 국수주의 열풍? ... 외국인 취업제한, 어학시험 도입 논란

말레이, 외국인 식당취업 금지 추진...인니는 어학시험 의무화



▲ [데일리인도네시아 자료사진] 자카르타 외곽의 한 쇼핑몰에서 중국계 인도네시아인들의 설날인 임렉(imlek)에 즈음해 사자춤 공연을 하고 있다.

동남아 주요 경제국인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외국인의 자국내 취업을 직간접적으로 제한하려는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국영 베르나마 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쿨라세가란 말레이시아 인력자원부장관은 최근 이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현지식 식당의 외국인 요리사 신규 채용을 내달 1일부터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기존에 고용된 외국인 요리사들도 올해 말까지만 근무하게 하고 내년부터는 전원 현지인으로 교체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쿨라세가란 장관은 요식업계의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를 낮추고 토속음식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2014년 피낭 주가 '호커(hawker) 센터'로 불리는 야외 푸드코트에서의 외국인 요리사 고용을 금지한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식 음식점과 고급 레스토랑, 5성급 호텔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건비 상승을 우려한 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쿨라세가란 장관은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 '제안'에 불과하다며 한 발 뒤로 물러선 모습을 보였다. 관련 규제를 확대한다는 입장을 철회하지는 않고 있다.

이웃 인도네시아는 외국인의 취업 절차를 간소화한다면서 동남아에선 처음으로 어학시험을 의무화해 반발을 사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일하는 외국인인 고용 주체나 직위와 무관하게 별도의 취업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지 교육기관에서 6개월 이상 수업을 받고 인도네시아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면 규제를 가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중국의 투자로 진행되는 대규모 인프라 건설 사업 현장에서 일하는 중국인

불법노동자 문제가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현지에선 이러한 조치가 외국인 투자 유치와 현지 업체의 외국인 전문인력 수급을 방해할 뿐 아무런 실익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수르요 술리스트로 전 인도네시아상공회의소 회장은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어차피 시험을 치지 않는) 외국인 불법노동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은행가와 기술자 등 전문가에 대한 어학시험을 도입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실질적 효과보다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일반 대중의 거부감을 의식한 대중영합적 성격이 커 보인다.

말레이시아는 2000년대부터 이슬람 금융과 중국계 자금의 유입이 본격화하면서 급격한 성장을 이뤘지만, 서민들은 물가상승 등으로 생활고를 겪으면서 외국인 불법노동자에 대한 반감이 커졌다.

인도네시아는 이달 지방선거와 내년 4월 총·대선을 앞두고 에너지 가격을 동결하는 등 노골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펴고 있다.

정치 전문가들은 재선에 도전하는 조코 위도도(일명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외국인 취업허가 간소화로 현지인들이 일자리를 빼앗기게 됐다는 정치공세를 의식해 어학능력 관련 규제를 도입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스마랑 아마드야니 공항, 새로운 터미널 운영 개시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 스마랑 아마드 야니 국제공항의 새로운 터미널이 6일 운영을 시작,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7일 새로운 터미널 운영 개시를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현지 언론 드퍽 7일자 보도

에 따르면 국영 항공사 가루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로 가는 항공편이 6일, 오전 6시 스마랑 공항을 출발했다.

새 터미널은 구 터미널에서 활주로를 끼고 북쪽에 있다. 새로운 터미널의 건물 면적은 구 터미널의 9배인 5만 8,652평방미터, 주기장의 부지 면적은 7만 2,522평방미터이다. 연간 여객 처리 능력은 690만명이다.

그랩페이, 전자머니 서비스 'OVO캐시' 로 완전 전환



싱가포르계 배차 앱 그랩(Grab)은 인도네시아 전자결제 서비스 '그랩페이(GrabPay)'를 인도네시아 리포 그룹(Lippo Group) 산하의 전자머니 포인트 서비스 '오보(OVO) 캐시'로 완전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랩페이에 남아있던 잔액은 전액 오보로 이전된다.

현지 언론 인베스트데일리 5일자 보도에 따르면 오보 사업을 다루고 있는 비시오넷 인터내셔널(PT Visionet Indonesia)은 지난달 그랩 인도네시아와 제휴를 맺고 그랩페이에서 오보로 마이그레이션 중이다.

오보는 인도네시아 중앙은

행(BI)에서 전자화폐 허가를 취득해, 지난 4일부터 충전(Top Up)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중앙은행은 그랩페이는 중앙은행의 허가를 취득하지 않은 이유로 2016년 10월부터 몇가지 기능을 중지했다.

오보는 현재 국내 소매점 및 영화관, 주차장, 병원, 음식점 등 약 70%에서 이용 가능하다.

도서출판/인쇄 광 개 토

-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 스티커
- 라벨
- 카렌다
- 행택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T. YUSUNG JAYA ABADI
구) PT. YUCOM JAYA MANDIRI

고객과 함께 한 18년!
신뢰와 감동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산업용 윤활유 전문대리점
PENZSTAR, AGIP
순정 OIL만 취급
일반 윤활유 상시 보유
48시간 이내 배송

Ruko Tataka Puri Blok C1 No. 30,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Telp : 021 598 0222, 021 598 2666 Fax : 598 4666
유인대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수카르노-하따공항 스카이 트레인, 9월부터 6량 편성 운영...운행간격 6분으로 단축

인도네시아 국영 공항 운영사 앙카사 뿌라2(PT Angkasa Pura2)는 19일 수카르노-하따 국제공항의 터미널 간을 연결하는 스카이 트레인이 9월부터 기존의 3량 편성에서 6량 편성으로 운행한다고 밝혔다.

운행 간격도 13분에서 6분으로 단축된다. 스카이 트레인은 오는 9월 운행 1주년을 맞는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앙카사 뿌라2의 아와루딩 사장은 “유인 운전에서 전자동 무인 운



전 차량(APM) 시스템으로 바꿀 계획이다”라며 “스카이 트레인 승객의 80%가 항공기 탑승객으로 터미널 간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하고 싶다”라고 설명했다.

스카이 트레인은 시속 30킬로미터로 공항철도 공항역과 제1~3터미널을 운행한다. 내년 말 착공 예정인 제4터미널 주변 골프장이나 상업시설까지도 연결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일본이 주도하는 TPP11에 참여 의사 표명



▲ 유슈프 깔라 인도네시아 부통령

인도네시아가 일본이 주도하는 ‘TPP(환태평양경제협정) 11’에 참여 의사를 표명했다.

1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이날 ‘아시아의 미래’ 컨퍼런스에 참석한 유슈프

깔라 인도네시아 부통령은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에 의한 TPP에 인도네시아는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깔라 부통령은 “인도네시아가 참여하지 않으면 (재화나 서비스) 시장 접근에 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참여하기 위해) 어떠한 절차가 필요한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외교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은 인구가 많고 거대한 시장으로 인도네시아에게 중요하다. 협력해 나가겠다”며 지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TPP는 지난해 1월 미국이 탈퇴하면서 일본을 중심으로 캐나다, 멕시코,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국이 협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4월에는 태국도 지난 참여 의사를 밝혔다.

한-인니, 국제청장 회의 현지기업 세정지원 논의

인도네시아 국제청장
“한국 납세자 보호제도 적극 수용할 것”

한승희 국제청장이 6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로버트 빠빠한 인도네시아 국제청장과 현지기업 세정 지원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국제청이 밝혔다.

양해각서에는 양국 간 기업의 진출·투자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세권 분쟁에 대비해 양국 국제청장이 매년 1회 회의를 정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 중 두 번째로 큰 우리나라의 투자 대상국이자 기업 진출국이다.

양국 청장은 국제 거래를 악용한 ‘소득이전 및 세원 잠식’(BEPS)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정상적인 국제 거래가 위축되지 않도록 과세당국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했다.

또 이중과세 발생, 환급 지



연 등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인들의 세정 애로 사항을 제시하며 지원을 당부했다.

한 청장은 인도네시아의 요청으로 한국의 납세자 권리보호제도의 운용 현황과 경험도 공유했다.

빠빠한 청장은 한국의 권리보호 요청제도 등에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권리보호 요청제도는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될 때 권리 보호를 요청하면 집행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 청장은 변화하는 세정 환경에 맞춰 납세자를 세정의 주인으로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소중한 새싹

갓 피어난 새싹처럼 소중한 함을 알고 있습니다. 세찬 풍파 속에서도 항상 열린 마음으로 고객의 곁에 있을 것입니다. 푸른 새싹이 큰 나무로 성장 할 수 있는 멘토를 아낌없이 하겠습니다.

JC PT. JOO CONSULTANT

Office : Karawaci Office Park (Ruko Pinangia) Block D37 Lippo Karawaci Tangerang
Tel : (021) 558 1618
Email : joo_consultant@hotmail.com/jooconsultant@hanmail.net

TOILON

ROOF

SINCE 2003

단열재 지붕 벽체 전문생산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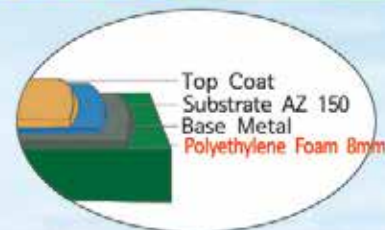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래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1. Anti Panas 단열효과
2. Anti Bising 흡음효과
3. Anti Api 난연효과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일점식

1. 35mm Trimdek (930mm, 35mm)
2. 25mm Trimdek (1040, 25mm)
3. 35mm Spandek (920, 35mm)
4. 110mm Seaming Type (Roll on Site) (420, 110, 225)
5. Genteng Metal (기 와) (82, 35, 20)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질판은 호주기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점식 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무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LG 미래 먹거리 '수처리' 印尼로 영토 확장

LG히타치워터솔루션이 인도네시아에 청정 수처리 설비를 지으며 미래 먹거리인 물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14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LG히타치워터솔루션이 인도네시아 플로레스섬 뿌라우메사(Pulau Mesa) 지역에 청정 수처리 설비를 짓는다.

현지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은 오랜 기간 물 부족을 겪어왔다. 이번 설비 건설로 약 470가구 1,990명이 깨끗한 담수를 공급받게 됐다"고 전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자원의 21%에 해당하는 풍부한 담수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실제 마실 수 있는 물은 적다. 경제 발전에 준하는 인프라스트럭처가 개발되지 않아 수자원이 오염됐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 LG화학의 가정용 수처리 RO 필터

은 상수도관 설치 비율이 낮은 데다 이미 구축된 상수도관마저 노후화해 물 유실률이 높다.

LG는 수처리 설비 건설을 통해 인도네시아의 물 자급률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사업 영토를 넓히게 됐다. LG는 2010년부터 수처리 사업을 그룹의 미래 먹거리로 선정하고 키워왔다.

LG전자는 2011년 수처리 운

영 전문업체 대우엔텍을 인수하고 2012년 수처리 시공업체 히타치플랜트테크놀로지와 LG히타치워터솔루션을 설립했다. LG화학 역시 수처리 필터 전문업체 H2O사를 인수하며 그룹 간 시너지를 극대화했다.

LG전자는 여과막인 멤브레인 연구와 생산을, LG화학은 수처리 관련 필터를 생산한다. LG히타치워터솔루션은 수처리장을 시공하며 하이엔텍은 중대형 수처리 시설 설계와 운영 관리에 이르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한편 물 전문 리서치 기관 글로벌워터인텔리전스(GWI)는 세계 물 시장 규모가 매년 4.2%씩 성장해 2025년쯤 1,000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시아나, 자카르타-인천 460만루피아 특가 이벤트



아시아나항공이 자카르타-인천 구간 특가 항공권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아시아나항공 자카르타지사에서는 자카르타 출발, 인천 왕복 항공권을 460만 루피아(세금 및 유류할증료 미포함)에 2018년 7월 20일까지 판매한다.

이 항공권의 여행기간은 2018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며, 특가 항공권의 약관과 조건이 적용된다.

특가 항공권은 아시아나항공 웹사이트 또는 각 여행사에서 구매할 수 있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선물거래 '청신호'

인도네시아 암호화폐 선물거래에 청신호가 켜졌다고 코인데스크가 현지 언론을 인용해 5일 보도했다.

전일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선물거래감독원은 암호화폐를 두고 "선물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있는 상품"이라고 결론 냈다.

다르마 요가 선물거래감독원장은 "4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이번 결정을 공식화하기 위한 법령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에서 비트코인 선물상품이 출시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그러면서 "암호화폐 거래소 및 관련 세제를 둘러싼 규정들도 중앙은행과 국세청이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지



난해 말 현지 비트코인 결제를 금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암호화폐를 법적 결제수단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요가 감독원장은 이어 포괄적 규제 틀을 마련하기 위해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에 규제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7,400달러 선으로 후퇴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오후 1시 54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1.16% 내린 7403.59달러에 거래됐다.

아가방앤컴퍼니, 꼬따 카사블랑카 몰 입점



▲ [아가방앤컴퍼니 제공]

유아패션용품 전문기업 아가방앤컴퍼니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대규모 쇼핑센터인 꼬따 카사블랑카(Kota Kasablanka)에 '아가방 갤러리' 매장을 오픈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에 오픈한 꼬따 카사블

랑카 몰은 아가방앤컴퍼니의 다양한 브랜드를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멀티숍인 아가방 갤러리다.

아가방 갤러리에는 유아동 대표 의류 브랜드 '아가방', 유아 전문 스킨케어 '퓨토', 육아용품 브랜드 '엘츠', '베베리쉬' 등 다양한 브랜드가 준비돼 있어 육아에 필요한 제품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다.

아가방앤컴퍼니는 2014년 12월 자카르타 '간다리아 시티'(Gandaria City) 쇼핑몰에 아가방 갤러리를 입점시킨 후 이번 매장까지 총 5개의 매장을 인도네시아에 오픈했다.

아가방앤컴퍼니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중요한 시장으로 급부상하는 만큼 체계적이고 단계적으로 시장을 확대해 외형과 수익을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향후 동남아시아의 거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데일리인도네시아]



www.sanjungkoreanresto.com



산정의 깊고 정갈한 맛, 정성스러운 서비스 그리고 품위있는 분위기를 즐기십시오.

최고의 한식 셰프가 만든다

평양식 메밀냉면

명품만두

전통 한식 바베큐



Pork BBQ 7 Items!

Barbeque pork **20% Off**

Karawaci

Jl. Boulevard Palem Raya No.2809 Taman Sari Uppa Karawaci
(021) 547-3172-3. Hp: 08222-09-55547

Cikarang

Jl. Majapahit, Desa Cibatu Kav.62, Uppa Cikarang
(021) 2909-3000, (021)2909-3555 Hp: 0812-9037-7717

Pantai Indah Kapuk

Ruko the Gallery Block 8 unit FC Jl.Pantai Indah Utara 2, Pantai Indah Kapuk
(021) 3005-1650, (021)3005-1660 Hp: 0811-823-9000

인니 캐시리스(Cashless)화 가속... 1~4월 전자 거래액 5배 증가



: IT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 등이 증가함에 따라 올해 캐시리스화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로스마야 부총재는 “무(無)현금 결제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안전하고 효율적인 인프라의 정비나 은행 및 금융 기관과의 협력 강화, 고속도로 요금소의 전자 결제 시스템 개선 등을 목표로 내걸었다.

고속도로 요금소의 캐시리스화는 지난해 9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어 10월말에는 전자 화폐 결제율이 전국 평균 92% 상승했다. 지난해 상반기의 월간 거래액은 1조 루피아 정도의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3조 루피아 이상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 캐시리스(Cashless)화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고속도로 톨게이트의 비(非)현금 결제화를 비롯한 전자 결제의 보급이 진행되고 있으며, 1~4월 전자 결제 거래 건수는 8억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액은 4.8배 증가한 13조 6,641억 루피아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핀테크(FinTech

NH투자증권, 인도네시아 현지기업 첫 IPO 성공



NH투자증권은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에 현지기업인 스리와하나(SRIWA-HANA ADITYAKARTA)를 8일(현지시간) 상장시켰다고 밝혔다.

이번 상장 주관업무는 NH투자증권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증권’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진출한 2009년 이후 최초로 IPO 대표 주관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NH코린도증권은 올해부터 투자은행(IB) 사업도 확대하면서 종합증권사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했다.

인도네시아 증권거래소(IDX)에 상장된 스리와 하나는 박스 및 포장 용기를 제조하고 유통하는 골판지 제조 업체다. 공모가는 160루피로 확정됐다. 공모 규모는 7억5,000만주이며, 한화 기준 약 100억원이다. 스리와 하나는 이날 상장 직후 상승제한

폭인 70%까지 오르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NH코린도증권은 이번 IPO 대표 주관을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3개 이상의 IPO 대표 주관 업무 수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채권 인수 주선 업무도 추진하는 등 인도네시아 IB 사업에서 경쟁력을 갖춰 나갈 예정이다.

NH코린도증권은 지난 2008년 인도네시아 대표적인 한상기업인 코린도그룹의 계열 증

권사 지분을 인수해 출범시킨 합작 증권사다. 지난 2009년 5월부터 영업을 개시했으며, 기관 고객 대상 주식중개영업 및 리테일 신용 공여 확대 등으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김정호 경영전략본부장은 “NH코린도증권은 한국 본사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며 동남아시아에서의 증권업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니 최대 코워킹 스페이스 EV 하이브, 2천만 달러 투자 유치



도하고 H&CK파트너스와 티그리스인베스트먼트, 라인벤처스, 네이버, 스틱인베스트먼트 등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V 하이브는 2015년 설립 후 동남아시아 최대 규모의 코워킹 스페이스로 성장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프리랜서와 1인 기업, 스타트업 등에 업무 공간을 제공한다.

인도네시아는 부동산 특성상 고가의 임대료를 1년치 이상 선불로 지급해야 하고 최

소 2년 이상 장기 계약해야 하는 조건 때문에 스타트업이 사무공간을 구하기 쉽지 않다. EV 하이브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공유 오피스 수요가 성장할 것을 내다보고 시장을 선점해 운영 면적과 지점 수에서 압도적인 1위로 성장했다. 현재 21개 지점에 300여개 기업이 입주해 있으며 지난 1년 간 입주자 수와 운영 면적은 각각 25배 이상 늘어났다.

이번 투자를 주도한 소프트뱅크벤처스의 이은우 파트너는 “EV 하이브는 동남아시아 시장에서 스타트업 업무 환경을 새롭게 정의해 차세대 유니콘 성장의 요람이 될 것”이라며

“동남아 시장 확장뿐만 아니라 한국과도 다양한 사업 시너지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V 하이브의 같은 라우 대표는 “이번 투자를 발판으로 자카르타 랜드마크 빌딩 공간을 다수 확보하여 8월까지 9개 층을 새롭게 열고 규모를 키우겠다”며 “입주 커뮤니티들이 긴밀히 소통하는 앱 기능을 강화해 더 나은 업무 환경을 지원하고, 발리와 반둥, 수라바야 등 인도네시아 주요 도시 진출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코워킹 스페이스 스타트업 EV 하이브가 소프트뱅크벤처스로부터

약 217억 원(2천만달러)의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 이번 투자자는 소프트뱅크벤처스가 주

**Concret polishing,
Epoxy, Teraso**

New Eco Flooring System.

KPCM

INDUSTRIAL ESTATE

Clear & Valuable

- Lotte Mart
- Lock & Lock
- CJ SUPER FEED
- Electronic Company
- Warehouse
- Interior
- Office
- Parking Lot
- Lobby etc

KPCM T. 021 2912 6235 E. kpcidhan@gmail.com
 HP. 0812 9504 9484
 Grand Wijaya Center, Blok H-20 Jl. Darmawangsa Raya, Jakarta 12160

아마존 24조 > 한국 19조 > 구글 17조... 아마존 연구개발비 구글도 제쳤다



▲ 아마존의 물류센터 내부 모습. [중앙포토]

세계적인 유통 기업 아마존의 연구개발비(R&D)가 2년 연속 구글을 따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시장 조사 업체 팩트셋(Factset)에 따르면 아마존은 지난해 연구개발비로 226억 달러(24조4300억원)를 투입해 2위를 차지한 구글의 지주사 알파벳을 따돌렸다. 알파벳은 지난해 연구개발비로 166억 달러(17조9400억원)를 쓴 것으로 조사됐다.

두 기업을 비교하면 아마존이 구글보다 7조원 이상을 연구개발에 더 쏟아부은 것이다. 팩트셋의 조사에 따르면 아마존은 2016년에도 연구개발비 투자에서 알파벳을 따돌렸다.

연구개발비만 놓고 보면 세계적으로 아마존에 맞설 적수가 없다. 팩트셋의 조사엔 한국 기업이 포함되지 않았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지난해 매출의 7% 수준인 16조8056억원을 연구개발비로 지출했다. 이를 팩트셋의 순위에 대입하면 3위 정도 수준으로 구글 다음이다. 인텔은 연구개발에 131억 달러(14조1200억원)를 투자했다. 이어 마이크로소프트 123억 달러(13조2500억원), 애플 116억 달러(12조5400억원) 순이었다. 이와 비교해 정부가 책정한 올해 국가 연구개발비 예산은 19조6000억원이다.

아마존의 미래 먹거리는 '맞춤형 의류'

'온라인' 서점에서 시작한 아마존은 '오프라인'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중이다. 2016년 12월 처음으로 선보인 무인 식료품점 '아마존고'가 대표적이다. 고객이 아마존 고 매장에 들어서면 매장 카메라가 고객을 추적한다. 카메라는 고객이 상품을 선택하는 순간을 인식해 물건 값을 매긴다. 아마존은 2014년 고객 동선을 따라 이동하는 카메라와 센서 기술의 특허를 등록했는데 특허부터 매장 개장까지 3년이 걸린 셈이다. 아마존은 올해 아마존 고 매장을 6곳으로 늘릴 계획이

다. 아마존이 준비하는 미래 먹거리는 그동안 발표한 특허를 보면 알 수 있다.

특히 정보 업체 IFI에 따르면 아마존은 2016년 한 해 동안 1662건의 특허를 등록했다.

가장 최근에 확인된 특허는 의류 피팅 거울이다. 월스트리트저널 등에 따르면 아마존이 개발하는 피팅 거울은



▲ 무인 식료품점 아마존 고의 매장 모습. [중앙포토]

사용자의 얼굴과 눈을 인식한다. 고객이 거울 앞에 서면 인터넷으로 선택한 옷을 가상으로 피팅해 준다.

아마존은 의류 유통 구조를 뜯어고치기 위한 준비도 착착 진행하고 있다. 개인 맞춤형 옷이 그것이다. 스킨(S), 미디엄(M), 라지(L)라는 단순 분류에서 벗어나 수선 없이 입을 수 있는 맞춤형 의류를 개발하기 위해 고객들의 신체 사이즈를 수집하고 있다.

아마존의 의류 유통 혁신이 성공하면 전통적인 의류 사이즈 체계도 바뀔 전망이다.

가정용 로봇에 이어 블록체인 기술에도 도전

아마존은 가정용 로봇 개발 프로젝트도 진행하는 중이다. 베스타(Vesta)라는 이름의 가정용 로봇에는 아마존의 인공지능 기반 음성인식 스피커인 '에코' 기능이 포함될 전망이다. 베스타는 주인의 음성을 듣고 답을 하거나 반응하는 로봇이 될 것으로 블룸버그 통신 등은 예상하고 있다. 최근에는 블록체인 기술 개발에도 진출했다. 아마존은 지난달 아마존 클라우드(AWS)를 활용한 블록체인 서비스인

칼레이도를 선보였다.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아마존은 최근 사람의 행동이나 박수 소리 등을 알아듣는 드론 특허를 등록했다. 이를 활용하면 드론을 활용한 배송 서비스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마존은 2012년부터 드론을 활용한 물건 배송을 개발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선 시범 서비스에도 성공했다. 사람 행동을 인식하는 드론을 아마존이 상용화에 성공할 경우 드론 배송 시장도 선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보고서에선 연구개발비 항목 없어

흥미로운 사실은 아마존이

공시하고 있는 사업보고서엔 연구개발비(R&D)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아마존은 연구개발비



▲ 아마존이 세계 최초로 선보인 디스플레이를 설치한 인공지능 스피커 예코쇼. [중앙포토]

항목을 대신해 테크놀로지 and 콘텐츠(technology and content)란 용어를 사용한다. 이를 두고 지난해 연말

부터 아마존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아마존이 다른 IT 기업처럼 연구개발비를 공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하지만 끝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아마존은 "고객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들이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연구개발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아마존의 주장에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한발 물러선 상황이다.



▲ 아마존이 최근 선보인 차량 트렁크 배달 서비스의 모습. [사진 아마존]

동남아 대표 차량공유업 그랩, 우버 등에 업고 인니서 고젝 뛰어넘나

그랩, 우버 점유율 합하면 고젝 추월... 동남아 시장 '1강' 체제 굳힐 수도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차량공유업계의 경쟁이 거세지고 있다.

동남아 시장을 장악한 싱가포르 그랩이 우버를 등에 업고 인도네시아 대표 차량공유업체 고젝을 뛰어넘어 '1강'에 등극할지 주목된다.

4일(현지시간)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그랩이 이용자 수를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에서 고젝을 추월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차량공유 앱이 택시 대신 운송업을 장악해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서비스로 자리 잡았다.

인도네시아 교통 당국의 자료를 바탕으로 이용자 점유율을 추정한 결과 고젝이 45.5%, 그랩이 45.1%, 우버가 9.4%를 각각 차지했다.

인도네시아 최대 업체인 고젝이 우세하지만 그랩이 우버의 동남아 사업을 흡수한 것을 고려하면 그랩이 고젝을 뛰어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2강' 체제였던 동남아 차량공유 시장에서 그랩이 1강에 등극한다는 의미로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버는 동남아 사업부를 그랩에 매각하기로 3월에 합의했다. 당시 엔서니 탄 그랩 최고경영자(CEO)는 "그랩과 우버의 동남아 사업을 통합하면 라이벌과 압도적 차이를 만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우버 사업의 인수는 새 시대의 시작"이라고

선언했다.

그러나 두 업체의 사업 통합을 단순한 '더하기'로 간주해서는 안된다. 인도네시아 배차 앱 이용자의 40%가 그랩과 고젝 두 업체를 모두 이용해서다. 할인이나 대기 시간 등을 비교한 후 선택하는 식이다. 우버를 이용하던 사람이 모두 그랩을 이용할 것



이라고 볼 수도 없다.

우버 운전기사들이 그랩으로 100% 이동하는 것도 아니다. 그랩 인도네시아 법인은 우버 기사들에게 "여러분의 생계를 배려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으나 그랩에 재등록해야 하는 과정이 번거로워 기사들의 반발을 샀다.

우버가 인도네시아에서 서비스를 중단하자 우버 기사였던 아니스는 그랩이 아니라 고젝에 등록했다. 그는 "고젝 택배 서비스의 인기가 높아 일을 구하기 쉬울 것 같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에서는 고젝이 소폭 앞섰으나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는 그랩의 독

점에 가까운 상황이다. 이미 동남아를 석권한 그랩이 인도네시아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지 주목받는 이유다.

인도네시아 최대 업체로 버티고 있는 고젝이 기반을 넓힐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커진다. 고젝은 지난달 24일 베트남과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 동남아 4개국에 진출하며 이를 위해 5억 달러(약 5,359억 원)를 투자할 계획이라 발표했다. 고젝은 "차량공유 서비스를 시작하며 궁극

적으로는 인도네시아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펼치고 싶다"고 밝혔다. 나디엠 마까림 고젝 창업자 겸 CEO는 우버의 이탈로 그랩이 동남아 시장을 장악해 소비자의 선택권이 사라진 상황을 비판하며 그랩의 아성을 무너뜨리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차량뿐만 아니라 택배와 금융, 콘텐츠 등 사업을 확장 중인 두 기업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고젝의 해외 진출은 쉽지 않을 것이라며 역내 후발 주자인 고젝도 운전기사를 확보하는 게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한다면 블록체인은 10년 후 세상을 지배하는 기술이 될 것이다.

지구를 한두 사람이나 기존 세력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주인이 되고 모두가 같은 권력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2009년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비트코인이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 이 대안적 성격의 화폐가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킬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미래학자들 외에 없었다.

비트코인은 그 출범 자체가 자유적이며 반정부주의적이다. 부정부패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분산화된 장부를 수십억 명이 가지면서 어느 한 기관, 기구, 사람이 조종하고 통제할 수 없게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농경시대에는 종교가 권력을 갖고, 산업화 시대에는 국가가, 정보화 시대에는 기업이 그리고 인공지능 시대에는 똑똑한 개개인이 권력을 갖게 된다는 유엔미래포럼의 미래 공식이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거대한 변화, 즉 피라미드 구조의 권력이 역피라미드 구조로 바뀌고 있으며 수평선처럼 권력이 납작해지는 평평한 세상이 오고 있다.

미래의 권력은 '신뢰' 에서 나온다. 그런데 현존하는 국가는 신뢰를 잃었다. 모든 권력에는 부정부패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신뢰 게임이 시작되었고 클라우드소싱으로 일반인에게 권력을 골고루 나눠주는 것이 신뢰를 얻기에 최고였다. 그것이 '스마트 계약(smart contract)' 이며,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져 있다.

블록체인이 강력한 근본적 이유

는 사용자에게 의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확인되는 분산형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이다.

블록체인은 기존에 공인 받은 제3자만 검증, 기록, 보관할 수 있었던 금융회사의 중앙 집중형 장부 서버를 네트워크 참여자 모두에게 분산하는 기술이다.

누군가가 비트코인을 당신에게 보내면 이 일련의 거래 정보를 분 단위로 기록해 블록으로 만들어 모든 참여자에게 전송한다.

그리고 그 블록들은 체인으로 연결된다. 장부를 조작하려고 해도 이를 보관하고 있는 모든 참여자의 컴퓨터를 조작해야 하는데 수시로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블록체인은 사실상 해킹이 불가능하고 안정성 측면에서



행되도록 프로그래밍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이나 상속, 증여 등에 이미 사용되고 있다.

기술적으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스마트 계약은 금융기관과 변호사, 판사, 회계감사원과 보험 전문가 등의 필요를 없앤다.

이를 비웃었다.

지금은 어떤가? 은행은 비트코인과 경쟁하는 입장이 됐으며, 앞으로 싸우다가 5년 내에 블록체인에 진다고 본다.

이렇게 해서 블록체인 기술은 지금의 인터넷보다 더 커지며 더

로그래밍이 가능한 돈인 토큰과 코인 등이 나올 수 있다. 결국 현금 없는 사회, 화폐를 손에 들고 다니지 않는 사회가 온다. 현금이 없으면 정부가 부패하지 않는다. 현금은 흔적이 남지 않지만 코인, 토큰은 모두 흔적이 남기 때

블록체인이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상편)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을 재편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블록체인의 또다른 유용성은 스마트 계약에 있다.

블록체인을 통해 일정 조건을 만족시키면 거래가 자동으로 실행

매매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복잡하고 비싼 절차 없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자동으로 보내는 세상이 된다.

블록체인이 본격적으로 운용되어 모든 법률을 스마트 계약 관 계로 분석, 저장하고 행정시스템과 연동할 수 있으면 공무원도 필요 없게 된다.

스마트 계약의 가능성은 지금의 간단한 은행 업무나 법률 자문 처리를 넘어 다양하게 발전할 것이다. 즉 정부 없이도 블록체인이 국가를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 전 세계는 하나로 집중되는 권력이 사라지고 개인의 사적 자유가 더 크게 보장되는 곳이 된다.

블록체인은 앞으로 은행과 정부에게서 권력을 빼앗아 갈 것이다. 미국이 JP모건의 손에 놀아난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은행 즉, 돈이 최대의 권력을 가진 시대다. 그러나 블록체인은 그 중간상인을 없애려고 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 사이에서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는 은행 같은 중간상인을 없애 국민은 수수료를 내지 않고 정부는 은행에 끌려 갈 필요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이런 세상이 오면 은행, 외환시장, 정부는 소멸할 것이다. 이는 과거 사람들이 통신사에 돈을 내고 국내 혹은 국제 전화를 쓰다가 갑자기 스카이프가 나와 통화료가 무료가 되자 통신사가 망한 것과 같다.

처음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금융권은 이 실제 없는 화폐를 완전히 무시했다. 비트코인이 조금씩 성장하고 있을 때도 은행은

파괴적이다. 국제 금융 거래를 하는 60억 명은 이제 자유롭게 은행에 수수료를 내지 않고 거의 무료로 코인을 이용하여 외국에 돈을 순식간에 보낼 수 있다.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게 되면 달러화가 붕괴된다. 그래서 분산화된 권력과 한 사람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신의 권리나 책임을 갖게 되며, 리더 없는 정부가 탄생하고 돈으로 사람을 통제하던 중앙권력은 스스로 무너져버리게 된다.

현재 월스트리트의 수많은 천재들이 월스트리트를 떠나고 있다.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천재들이 정부를 부정하거나 바꾸려고 노력 중이다. 초기에는 아웃사이더들만 블록체인 기술에 관심을 가졌지만 지금은 주류 세력까지 블록체인 기술에 매달리고 있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이 블록체인과 인공지능을 융합시키고 있다. 이런 속도라면 10년 안에 블록체인과 코인, 토큰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10~15년 후가 되면 5000개 이상의 코인 또는 토큰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가상화폐 규모가 1000억달러로 늘어났지만 이는 곧 20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세계 인구 중 20억 명은 아직도 은행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다. 이들에게 인터넷이 되고 코인이나 토큰 같은 가상화폐가 연결되면 국가와 상관없이 단일통화를 사용하게 되고, 국가는 이들을 통제할 수 없게 되면서 힘을 잃는 것이다.

현재 193개의 국가 화폐가 존재하지만 앞으로는 수십만 개의 프

문에 절대로 부정부패에 사용될 수 없기 때문이다. 코인이나 토큰 등 가상화폐는 우선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 은행이 없는 곳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다.

화폐 가치가 없어지는 짐바브웨에서는 이미 비트코인만 통용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도 마찬가지다.

은행이 급격하게 소멸하고 있는 나라도 많다. 수십만 년 전 인류는 깃털이나 조개를 물건의 지불단위로 사용했다. 그 이후에 금, 은, 동 등 귀중한 금속이 화폐로 사용됐고, 400년 전에 종이로 된 돈이 개발됐다.

그리고 20세기 들어 1950년 경에 신용카드가 나왔다. 1980년 대만 해도 개발이 덜 된 지역, 가난한 나라에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었다. 오늘날은 종이돈, 동전이 없어진 카드 세상이 됐다. 그리고 이제 가상화폐의 시대다. 가상화폐로 이제는 손에 쥘 카드마저 없어졌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는 10~15년 사이에 오늘날 우리가 카드를 사용하듯이 돈 거래의 중심이 될 것이다.

최근 가상화폐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기술이 직면하는 필연적인 과정과도 같다. 1991년 초창기에 인터넷이 보급되었을 때 인터넷 속에서는 포르노 업자, 마약상, 범죄자가 우글거렸다. 현재 비트코인이나 토큰 등 가상화폐도 인터넷 초창기와 같은 상황이다.

아직까지는 미국 서부개척시대와 흡사한 것이다. 기술이 점차 발전하면 가상화폐도 인터넷처럼 정제되고 지구촌 인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수단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한국에서도 가상화폐가 투자·투기의 도구로 많이 알려져 규제 대상으로 검토되었지만 최근에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4차 산업혁명의 중요 기술로 자리잡도록 정부적 차원에서 혁신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그나마 다행이다.

(중편에서 이어집니다)

바구스 투어

인도네시아 비자대행
BAGUS/ 조은여행

**고객 여러분의 편의를 위하여
다양한 상품을
소개해 드립니다.
특별한 주말 비자여행!!!
이제 바구스투어에서 시행합니다.**

싱가포르 비자 여행

- 공항 픽업 서비스
- 리버보트
- 점심
- 공항 센딩

**말레이시아 [조호바루] 비자여행
일요일도 비자 가능합니다**

평일 12시 전 여권 수령가능
2~3시 인니 귀인 가능

손님이 원하실 경우
호스텔 무료 1박 서비스

Office : (+65) 6224 4330
 HP : (+65) 9060 2449, (+65) 9821 3672
 카톡 ID : 소장 김경수 bagusvisatour
 Address : 49A South Bridge Road, Singapore 058681
 E-Mail : bagustour2015@gmail.com

강문갑의 역사속으로

[나는 일본이 조선을 손에 넣는 것을 보고 싶다(2)]



1899년부터 1901년까지 약 3년에 걸쳐 청나라에서 일어난 반외세운동인 의화단 봉기가 만주까지 확산되면서 동청철도(東清鐵道)가 파괴되자, ‘동청철도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대병력을 동원하여 만주 전역을 점령한 러시아군은 진압후에도 삼림 채벌권을 획득코자 압록강 하구에 있는 용암포를 군사기지화하여 대한제국까지 야욕을 노골화하였다.

의화단 운동을 계기로 러시아의 남진과 만주 점령, 한반도에 영향력을 행사하자 러시아와 일본간의 대립이 첨예한 가운데 일본은 이토 내각이 사퇴하고 등장한 가쓰라 다로 내각은 “구주 1국과의 협약체결, 대한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한다”는 정책을 수립하였다.

그 결과 1902년 1월30일, 영국과 일본은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세력확장을 일본이 견제하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인정한다는 제1차 영일동맹이 조인되었고, 1903년 8월부터 진행된 일본과 러시아의 협상에서 일본은 만주에서 러시아의 주도권을 인정하는 대신, 한반도에서는 일본의 주도권을 요구하였으나 러시아는 한반도 북위 39도선을 경계로 북쪽은 러시아, 남쪽은 일본으로 하는 분할 통치안을 역제안 함으로써 협상은 결렬되고 말았다.

미국 26대 대통령인 시어도어 루스벨트(1901~1909)는 힘이 모든것을 결정하고 약육강식의 현실을 정당화시켜 약한 국가를 침탈하는 것을 자연의 법칙으로 받아들인 사회

진화론자였고, 니토베이나조가 집필한 무사도(Bushido)를 읽고 사무라이 정신에 심취한 일본 편향적 인물이었다.

1900년 8월 부통령 후보가 되었을 때 “나는 일본이 조선을 손에 넣는 것을 보고 싶다”는 그의 희망은 미국의 아시아정책이 되었다.

당시 루스벨트의 러시아에 대한 태도는 적대적이지 않았으나, 1902~1903년 러시아가 만주에서 병력철수와 문호개방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계기로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 대한제국에겐 재앙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일본은 영일동맹을 체결한 자신감으로 러시아와 전쟁을 대비해 청일전쟁 배상금을 군비 증강에 투입하였다.

2007년 4월 발간된 미국 사학자 캐럴 캐머런 쇼의 <외세에 의한 조선 독립의 파괴>에 따르면, 루스벨트는 일본의 전쟁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카네기 철강회사, JP 모건 등 대기업에서 미국이 조달한 일본의 전쟁비용은 약 7억엔(14조원 상당)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갑신정변때 민영익을 구해준 것이 계기가 되어 왕실의 사경고종의 정치고문이 된 알렌(1858~1932)은 고종과의 친분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금광채굴권, 철도부설 등 이권을 헐값에 외세에 넘김)을 위해

대한제국의 독립을 보장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러일전쟁이 현실화되는 상황의 변화를 인식한 알렌은 태도를 일변시킨다.

본국에 보낸 전보 내용에서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 그것은 미국의 국익에 더욱 적합할 것이다. 라며 일본의 조선지배를 인정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었다.

1904년 고종에 대한 평가도 “이 나라의 거대한 해충이 되어있고, 저주의 대상이 되어있다. 로마제국이 불타고 있는동안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있던 네로 황제처럼 무희들과 노닥거리고 있다.” 1904년 1월23일, 대한제국은 대외중립을 선언했으나, 허망한 몸짓에 불과했다.

2월8일,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독점적 영향력을 얻기 위해 순항을 기습 공격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고, 선전포고는 2월10일 발표했다.

러일전쟁이 발발하자 루스벨트는 “독일과 프랑스가 러시아를 지원한다면 본인은 즉각 일본을 지원할 것이며, 그런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대한제국은 이미 한성부를 점령한 일본의 강요로 2월 23일 식민지화의 첫 단계인 한일의정서가 조인되었다. 의정서 제4조에서 “대일본제국은 전항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군락상 필요한 지점을 정황에 따라 차지하여 이용할 수 있다”며 영토의 무제한 징발권을 명시하였다.

한일의정서 제1조에 규정된 ‘내정개선’을 구실삼아 8월22일 ‘한일 외국인 고문 용병에 관한 협정서(제1차 한일협약)’ 체결을 강제하여 일본이 추천하는 외국인 고문을 대한제국이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되었고, 미국인 스티븐스가 외교권을 장악하였다.



▲ 1904년 남대문 외곽을 거쳐 입성하는 일본군

최고의 건강 선물

빨간야파즘

Rp. 600.000 60팩 / Box

한국건강원

이슬브 종류액

개소주 종류액, 흑염소 종류액, 코브라 종류액, 자라 종류액, 잉어 종류액, 장어 종류액, 봉어 종류액, 마늘 종류액, 오가피 종류액

HP. 0811-92-3200
Tel. 021-2931 3027

인도네시아 전 지역
배달 드립니다

인니 현지 출시 경남관광상품 이용객 첫 방문

인도네시아 현지에 출시한 경남관광상품을 이용한 인도네시아 관광객이 21일 경남을 방문했다.

경남도는 지난해부터 인도네시아 시장에서 관광마케팅을 펼친 결과 인도네시아 바탐(Batam)에서 출발하는 경남관광상품을 이용한 첫 관광객이 경남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바탐 현지 12개 여행사로 구성된 경남컨소시엄에서 출시한 이번 상품은 20일 바탐을 출발하는 5박 7일 일정이다.

이 중 서울과 부산 일정을 빼면 3박 4일을 경남에서 체류한다.

합천 해인사를 시작으로 합천 영상테마파크, 진주성, 진주 롯데몰, 산청 동의보감촌, 김해 와인 터널과 김수로왕릉, 롯데 아울렛, 창원 용지호수, 창원 상남동 야시장, 통영 삼도수군통제영과 동피랑 마



▲인도네시아 관광객 방문(경남도 제공=연합뉴스)

을 등을 관광한다.

앞서 도는 지난해 4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바탐지역을 대상으로 경남 홍보설명회를 개최해 현지 마케팅을 벌였고 경남지역 우수관광상품에 관심을 보인 여행사를 대상으로 여행상품 팸투어를 벌인 뒤 출시했다.

강임기 도 관광진흥과장은 “인도네시아 시장의 신규 관광객 유치에 위해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지속해서 문을 두드린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경남관광상품을 인 근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시장까지 확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금투업계에서 인도네시아가 새로운 투자시장으로 각광받으면서 투자업계의 관심도 높아졌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주요 증권사 및 자산운용사들이 인도네시아에 사무소를 설립하거나 현지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간 국내 금투업계는 중국, 베트남 등을 유망 시장으로 주목하고 진출에 박차를 가해왔다. 그러나 중국의 성장세가 예전과 같지 않은데다 '사드' 등 대외적 요인으로 한중관계가 악화되는 등 '차이나 열풍'이 수그러들면서 업계는 새로운 시장 찾기에 나서 왔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4년간 경제성장률이 5%를 넘길 정도로 빠른 발전을 보이는 점도 글로벌 투심을 불러일으킨다. 특히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의 직접 투자를 장려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변경하고 있어 국내 금투업계에는 긍정적 요인이 되고 있

다. 금융투자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증권사가 보유한 인도네시아 법인 및 사무소는 총 6곳이다. NH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이 각각 1곳씩 보유하고 있으며 키움증권은 증권 및 키움자산운용 현지법인의 총 2곳을 갖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의 인도네시아 진출은 다른 동남아 국가와 비슷하게 주로 현지 증권사 인수 후 자회사화로 이뤄진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2014

증권가 신흥시장 인도네시아 투자 확대

아세안 最大 인구 성장률로 '포스트 차이나' 평가 현지 비상장 기업 IPO 주관 성공사례 속속 등장



이에 앞서 지난 2016년 인도네시아 증권사 마킨다증권을 인수한 신한금융투자는 현지 IB 시장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국내 증권사로서는 최초로 현지 아이스크림 제조업체 '캄피나'의 IPO를 진행하기도 했다.

같은 해 신한금융투자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유망 산업 및 기업을 소개하는 투자 가이드북을 발간하며 "불확실성이 점차 해소되고 있어 투자, 소비심리 회복이 기대된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국내

년 현지사무소를 연 뒤 지난해 현지 증권사인 단팍증권 지분 75%를 인수했다. 현재 회사는 한국형 HTS, MTS를 도입해 온라인 주식거래 시장을 집중 공략 중이며 단팍증권이 강점을 갖고 있던 채권중개 등에도 역량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사 중 가장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미래에셋대우도 채권중개, IPO 주관 등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 인도네시아 법인의 현지 주식 브로커리지 시장점유율은 상위 5위권에 달한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09년 'NH코린도증권'이라는 명칭으로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뒤 운영을 지속해 왔다.

지난 8일에는 박스포장 제조사인 스리와하나를 상장 주관해 현지진출 후 첫 현지법인 IPO에 성공했다.

키움증권은 지난 2010년 현지 증권사 '동서증권'과 인수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현지법인을 설립했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 증권사들은 경쟁이 치열해진 국내 시장 대신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신흥시장을 치열하게 모색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인도네시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HANSHIN AIR COMPRESSORS

(주)한신기계공업 인도네시아 총괄대리점

인도네시아 한인기업과 함께 한 18년!!!

중부자와 서비스지점 오픈 !!!



NH 시리즈(피스톤 콤프레셔)
국내 최대 판매, 유일 수출
피스톤 콤프레셔 (1~20마력)



RCH 시리즈 (소형스크류 콤프레셔)
설치면적 최소화, 경량화, 정숙화 실현
(5~20 마력)



AD-HT 시리즈 (일체형 드라이어)
에프터 쿨러, 에어필터, 에어 드라이어 일체형으로 설치면적 최소화.
입구온도 80°C 설계로 더운 동남아 지역에 최적함.



GRH 시리즈 (오일 인젝션 콤프레셔)
스크류 : 독일(GHH-RAND사)
세퍼레이터 : 일본



AL,CDH 시리즈 (오일프리 콤프레셔)
완벽한 오일 차단, 최장의 운전시간 보장, 최고의 오일프리 스크류 사용
AL 시리즈 : Kobelco(일본) CDH 시리즈 : GHH-RAND(독일)



매월 정기점검 서비스
국내 구입가 보다 저렴한 가격
세계적으로 성능이 인정된
독일 GHH RAND 스크류사용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현지인 매니저 / MARIONO : 0812 961 8455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TANGERANG
Ruko Tataka Puri Block C1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印尼 이슬람 패션스쿨, 무슬림 패션도 하나의 산업으로 뜬다

인도네시아의 첫 번째 이슬람 패션스쿨이 학생들에게 이슬람 계율을 바탕으로 한 디자인 및 스타일링, 마케팅 수업을 가르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 이슬람 패션스쿨에서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의 모습

오늘날 무슬림 의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이슬람의 전통 머릿수건, 여성을 위한 기타다란 드레스, 각종 종교적 무늬가 수놓아진 남성 의 예복 및 와이셔츠 등이 새롭게 디자인되고 있다. 이러한 인기로 힘입어 이슬람 패션스쿨은 현재 140여명의 학생이 수업에 등록했다.

3년 전 인도네시아 반둥에 이슬람 패션 기관을 설립한 패션 디자이너 데텐 시스완또는 “학생들이 현대 패션의 선구자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학교를 세우게 됐다”며 “디자인 수업을 통해 학생들이 직접 돈을 벌 수 있도록 돕는 것뿐만 아니라 이상적인 이슬람 계율도 가르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10대 학생들에게 히잡을 쓰는 법뿐만 아니라 어떻게 히잡이 인도네시아 패션 산업에서 새롭게 활용될

수 있는지 역시 가르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슬람 패션스쿨은 9개월 동안 패션 마케팅 및 기초적인 스타일링 등을 가르친다. 남성과 여성 또는 무슬림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패션스쿨

을 졸업했다. 패션스쿨 직원 울빠 안피는 “이슬람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옷의 색깔이나 디자인 등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며 “여성들이 쓰는 히잡 역시 가끔 목에 너무 짝 쪼여질 때가 있는데 새로운 디자인 개발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5년 첫 번째 무슬림 패션 위크를 개최해 오는 2020년까지 인도네시아를 무슬림 패션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기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라자다(Lazada)’, ‘잘로라(Zalora)’ 역시 최근 무슬림 패션을 전문으로 하는 페이지를 신설했다.

렉션을 출시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2억명의 인구를 포함하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이미 그 자체로 커다란 시장”이라며 “그만큼 무슬림 의류 산업의 발전 가능성도 아주 크다고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패션스쿨 직원 울빠 안피는 “이슬람 계율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옷의 색깔이나 디자인 등을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다”며 “여성들이 쓰는 히잡 역시 가끔 목에 너무 짝 쪼여질 때가 있는데 새로운 디자인 개발로 이러한 문제를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지난 2015년 첫 번째 무슬림 패션 위크를 개최해 오는 2020년까지 인도네시아를 무슬림 패션 산업의 중심으로 만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인도네시아 인기 온라인 쇼핑 플랫폼인 ‘라자다(Lazada)’, ‘잘로라(Zalora)’ 역시 최근 무슬림 패션을 전문으로 하는 페이지를 신설했다.

재인니 문화예술 총연합회 현판식



2018년 6월4일 재인니 문화예술 총연합회(이하 문예총) 현판식 거행하여 10월 초 제5회 문예총 종합예술제 개최 예정이다

문예총(회장 박형동)은 지난 6월 4일(월) 한인회관 1층에 위치한 문예총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거행하였다.

박형동 문예총회장을 필두로 문예총 임원 및 단체장들과 양영연 한인회장, 강희중 대한체육회장, 이명호 총영사, 천영평 문화원장, 최인실 한인회사무국장, 홍석영 편집장과 문예총 소속 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되었다.

이어진 임원 및 단체장회의를 통해 10월6일경에 개최될 제5회 문예총 종합예술제를 위한 논의를 하였다. 앞서 5월31일에 있었던 단체장 회

의를 통해 문예총 제5회 종합예술제를 비롯한 여러 안건으로 심도 깊은 의견을 나눈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예술제 장소 선정과 일정 조율 2.후원 업체 찾기 3.참가 단체와 프로그램 4.공연과 전시 담당 수석 부회장과 담당자 5.팸플릿을 위한 디자인 담당과 단체별 준비현황 6.자카르타 팝 오케스트라의 문예총 가입 희망건과 탈퇴요청단체 등

이번 현판식을 통해 한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간의 문화교류를 위해 애쓰는 박형동회장을 비롯한 문예총 임원진과 단체장들은 더욱 발전해 나가는 문예총의 활동을 기약하는 바이다.

(작성 : 문예총 허민경 사무차장)

‘491살’ 맞은 자카르타... 주정부 기념 축하 열어

자카르타가 491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었다.

22일 자카르타특별주는 중앙 자카르타의 주 정부 청사에서 만찬을 열고 자카르타의 탄생을 축하했다.

이날 참석한 아니스 바스웨단 자카르타특별주지사는 “

아이들이 살기 좋은 도시를 함께 만들어 나가자”고 인사했다.

자카르타특별주의 기념일은 1527년 6월 22일, 파타힐라(Fatahillah) 장군이 이끄는 이슬람 세력이 순다 깔라빠(북부 자카르타 지역)에서 포

르투갈 군을 추방하고 ‘카르타(위대한 승리의 도시)’라고 이름 붙인 데서 유래한다. 건국의 아버지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이 자야카르타(Jaya Karta)를 자카르타로 개명, 1958년 자카르타특별주정부는 6월 22일을 자카르타의 기념일로 지정했다.

한편, 491주년을 맞은 자카르타에는 2017년 기준 1,037만명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

며 인구 증가율은 1.06%다. 이 수치는 도시의 밀도가 놀라운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톱슨 목 금형(톱슨발형)

철판 커팅 레이저 신규 가동

생산성 향상
짧은제작기간
정밀성
품질 향상
경제성



철판,아크릴, 합판, 뼈그라이트등 레이저커팅



종이, 고무, 가죽, 스폰지,아스테이지, PC, 필름등 모든 자재 커팅금형의 최적금형의 대명사 "톱슨 목금형"

우수한 첨단장비로(CAD, Laser, Auto Banding)최상의 톱슨 목형을 제공하여

신속성, 정밀성, 경제성이 월등하며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부품 절단, 생산하는데 최상의 칼 금형

PT. BUSAN LASER INDONESIA

DELTA SILIKON 2 JL. KALIANDRA BLOK F6/3D CICAU-CIKARANG PUSAT BEKASI
TEL : (021) 2957 - 7591~2 FAX : (021) 8990 - 5309
H.P : 0812 8815 9157 E-MAIL : busan1144@gmail.com
http ://www.bsllaser.com

Steel Laser Cutting, Thomson Mold, Silling Knife

부산 레이저 목형

부산광역시 진구 신천대로 65번길 38호 (범천1동)
TEL : (051) 637-9791~3 FAX : (051) 637-9790
H.P : 010-3842-3239 E-mail : busan1144@korea.com
http://www.bsllaser.com

Steel 레이저절단, 씨링칼, 톱슨금형, 특수 칼금형

“만화로 한국 배워요” ... 각국 세종학당 ‘웹툰체험관’ 운영

해외에서 외국인에게 한국어·한국문화를 보급하는 세종학당재단(이사장 송향근)은 22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원장 안종철)과 국외 한국문화 확산을 위해 각국 세종학당에 ‘웹툰체험관’을 설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만화를 통해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꾸미는 웹툰체험관은 올해 베트남·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내년부터 전 세계로 확대한다.

재단은 대상 학당을 선정하고 진흥원은 학당에 PC 등 디지털 장비를 지원해 체험관을 꾸리게 된다. 진흥원은 웹툰 전문가를 파견해 한국 웹툰 관람뿐만 아니라 직접 그려보는 ‘창작 교실’도 운영



▲ ‘만화로 한국 배워요’ ...각국 세종학당 ‘웹툰체험관’ 운영 송향근 세종학당재단 이사장(왼쪽)이 22일 안종철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원장과 각국 세종학당에 ‘웹툰체험관’을 설치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다.

송 이사장은 “동남아에서 한국의 순정·유머 웹툰이 인기가 있는 만큼 재미있게 한국어도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안 원장은 “웹툰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웹툰 창작에 의욕 있는 외국인에게 기초과정부터 시작해 심화 강의까지 배울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2018 국민추천포상 안내



정부는 2018년 국민추천포상 제도를 실시한다.

국민추천포상은 정부가 사회 곳곳에서 헌신하고 노력해 온 숨은 공로자들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추천받아 포상하는 제도다.

개인 또는 단체 등 국민 누구나 (본인 추천불가) 추천할

수 있으며 사회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사람, 재산 또는 재능을 기부한 사람, 인명구조 또는 생명보호에 헌신한 사람, 환경을 지키고 가꾸는데 힘쓰는 사람, 역경을 극복해 주변에 희망과 용기를 준 사람, 국제구호 등으로 대한민국을 빛낸 사람, 따뜻한 가족에 또

는 통합(화합)을 실천해 귀감이 된 사람 등을 추천하면 된다.

독립운동, 보훈, 참전, 학술, 연구, 고도의 기술 등 소관부처에서 전문적으로 심사할 사항이나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인터넷, 모바일, 전자우편, 일반우편으로 추천서를 제출하거나 행정안전부로 직접 방문할 수 있다.

추천 후에는 공적사실 확인, 요건확인, 공적심사, 포상결정, 포상수여의 절차로 진행되며 2019년 4월에 포상 예정이다.

문의: 행정안전부 상훈담당관실 (02 2100-3169, 3538)

제60회 한국어능력시험(TOPIK) 시행 계획

*접수기간 및 시험일정이 수정되어 제공지함

- 접수기간 : 2018년 7월 27일(금) ~ 8월 7일(화)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JIKS, 교장 백우정)에서는 해마다 한국어능력 시험(이하 TOPIK)을 시행하여 한국어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 보급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세계적인 한류 열풍 분위기에 힘입어 해를 거듭할수록 TOPIK에 대한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018년 10월 21일(일)에 실시되는 제60회 한국어능력시험 TOPIK I, TOPIK II의 접수가 오는 2018년 7월 27일(금)부터 2018년 8월 7일(화)까지 진행된다.

원서는 자카르타, 족자카르타, 발리, 반둥 각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며 접수 시

증명사진 3매(3cm×4cm), 신분증(한국인은 여권) 사본 1부, 응시 수료를 준비해야 한다.

제 60 회 한국어능력시험 공고문

■ 실시 안내

□ 원서 접수 기간: 2018년 07월 27일(금) ~ 08월 7일(화) (08:00~15:00)

□ 원서 접수 장소

- JAKARTA

자카르타한국국제학교 행정실

021-844-4958

- YOGYAKARTA

Universitas Gadjah Mada (UGM)

027-451-3096

- BALI

발리한국학교

0361-464-333

- BANDUNG

Universitas Pendidikan Indonesia(UPI)

0821-1566-6969

□ 원서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접수

□ 응시 수수료:

IDR 150,000(TOPIK I), IDR

250,000(TOPIK II)

- 환불 가능 기간 : 2018. 07. 27(금) ~ 2018. 08. 09(목), 해당 기간 이후 환불 불가

□ 원서 접수 시 준비물 : 증명사진 3매(3cm×4cm), 신분증(한국인은 여권) 사본 1부, 응시 수수료

□ 성적 발표: 2018년 11월 29일(우편물은 예정보다 늦어질 수 있음)

- 성적증명서 배부는 접수처의 지침에 따름

- 성적증명서는 한국어능력시험 홈페이지(www.topik.go.kr)에서 무료 출력 가능

■ 시험 시행

□ 시험 일자: 2018년 10월 21일(일)

□ 시험 장소: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족자카르타 UGM 대학교, 발리한국학교, 반둥 UPI 대학교

■ 시험 안내

□ 입실 시간: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입실

□ 응시자 준비물: 수험표, 신분증(사진과 인적사항이 포함된 신분증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신분증) *수험표는 시험 당일 배부 (*반드시 응시료 영수증 지참)

□ 응시자 유의 사항

- 듣기/읽기 답안의 작성은 반드시 양면사인펜(시험장에서 배부)으로 작성

- 쓰기 답안은 감독관이 배부한 양면사인펜의 얇은 부분으로 작성

- 휴대전화 등 모든 전자기기는 시험 전에 전원을 끄고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함.

-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은 유인물 참조

- 시험 수준별(TOPIK I, II) 지원 인원이 5명 미만인 경우 시험 시행하지 않음.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전화 021-844-4958)으로 문의 바랍니다.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장

인니 비즈니스의 脈

20년 세월! 한인동포 기업의 성공적인 사업과 인허가, 비자대행 업무로 한결같은 길을 걸어왔습니다.

신뢰와 성실로 다져온 CITRA CONSULTING은 한인동포의 어려움과 보다 안정된 사업을 위해 함께 해 나갈것입니다

Try your best rather than be the best

CITRA Consulting

주요업무

시장조사 / 회사설립 / 수출입 관련 서류 및 보세구역 / 체류관련 / 기타 업무

신한인도네시아은행, 96%가 현지대출...이중심사로 부실 관리



SHINHAN BANK

‘비네카 통갈 이카’

(Bhinneka Tunggal Ika)

인도네시아 국장(國章)인 가루다의 발밑에 적혀 있는 문구로 ‘다양성 속의 통합’을 뜻한다. 가루다는 힌두교의 비시누 신을 태우던 전설 속의 새다. 인구 기준으로 세계 최대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 국장에 이슬람교가 아닌 힌두교 상징이 그려져 있다. 이처럼 인도네시아는 다름을 인정하는 포용과 화합의 문화로 2억6000만명의 인구가 매년 5% 이상의 경제성장을 이뤄가고 있다.

하지만 금융 부문은 여전히 낙후돼 있다. 국민 10명 중 6명은 아예 은행 거래가 없을 정도로 소득이 미미하고 신용 인프라도 갖춰지지 않아 은행업 발전에 제약이 많아졌다.

‘비네카 통갈 이카’라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인데도 1997년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아픔을 겪은 역사가 있어 외국계 은행의 진출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도 한다.

하지만 그만큼 잠재 고객이 많고 성장 여력이 크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런 도전적인 환경에도 성장 잠재력을 보고 인도네시아에 진출해 2015년 11월뱅크메트로익스프레스(BME), 2016년 12월 센트럴 내셔널은행(CNB)을 연달아 인수해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을 출범했다. 현재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60개 지점을 두고 현지영업을 하고 있다.

1년반만에 자산 10조루피아... 전년대비 2배 성장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국내 다른 은행보다 인도네시아 진출이 늦어 ‘점진적 성장’보다 ‘압축 성장’을 목표로 한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지난 달 말 대출자산이 8조1200억루피아(약 6500억원), 채권 및 예금자산이 1조9610억루피아(약 1600억원)였다. 총 자산 10조807억루피아로 국내 다른 은행이 7~8년간 이뤘던 자산 성장을 1년반만에 달성했다. 순이익 규모는 지난해 1132억루피아(약 90억원)에 이어 올해는 5월까지 600억루피아(약 48억원)를 달성했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자산은 4조7915억루피아 대비 2배 이상, 당기순이익은 148억

자산 전년대비 2배 성장...모바일로 현지인 개인금융 공략에 박차



루피아 대비 4배 이상 성장했다.

지금까지 국내 은행의 해외 진출은 한국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따라 나갔다가 다음 단계로 현지 기업이나 현지인 대상으로 영업을 시도하는 형태를 보였다.

반면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출범과 동시에 현지 영업에 주력했다. 현재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직원 730명 가운데 한국에서 파견된 직원은 14명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현지인이다. 대출자산의 96%는 현지 대기업, 중견·중소기업, 국영기업 등 현지 대출이다.

변상모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법인장은 현지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찾아오는 고객만 상대하려 하던 현지 직원들을 설득하는 일부터 했다. 변 법인장은 첫 부서장 회의에서 구두를 선물하면서 발로 뛰어 고객을 찾아가는 영업을 강조했다.

모든 지점장이 참여하는 모바일 대화방을 열어 실적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이 대화방에서 각 지점장은 자신의 영업 성과를 공유하고 잘한 지점장은 축하해주며 서로 격려하고 동기를 부여받고 있다.

한국에 있는 은행과 달리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직원을 평가하는 핵심성과지표(KPI)가 없지만 잘하는 직원은 크게 보상해 자연스럽게 일하고

자 하는 동기를 유발한다.

변 법인장은 “1년반 전 신한인도네시아은행에 처음 왔을 때는 60개 지점 대부분이 손실을 내고 있었고 60개 지점 모두 합쳐도 한 달간 대출 취급건수가 5건이 되지 않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하루에도 여러 건씩 대출이 일어난다”며 “현재 거의 모든 지점이 다 수익을 내고 있고 자산 증가 속도도 하루가 다르게 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은행원이 한국처럼 선망받는 직업이 아니고 이직률도 높은 편이다. 이에 변 법인장은 매년 현지 직원 50명을 한국으로 연수보내 신한은행에 근무한다는 자부심을 키워주고 있다.

그는 “인도네시아 1위 은행인 만드리는은행의 자산이 1000억달러 정도인데 신한은행은 4000억달러 수준으로 직원들에게 큰 은행에 다니고 있다는 것을 직접 보고 느끼

게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중 대출심사로 부실비율 최저 수준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의 대출 자산은 대부분 현지 대출이지만 부실채권(NPL) 비율은 0.71%로 인도네시아 은행권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은행들의 NPL 비율은 3% 전후로 집계되지만 업계에 따르면 실제 NPL 비율은 8%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영업직원이 1차로 심사한 뒤 인도네시아 본점의 심사를 재차 거치는 2중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변 법인장은 “신한은행에서는 영업직원이 영업을 하면서 동시에 위험도 관리하는데 이를 현지에도 적용하고 있다”며 “물건을 팔면 끝나는 일반 기업과 달리 은행은 대출 상품을 팔면 상환될 때까지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해 이제는 영업직원들이 알아서 우량 대출 고객을 선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금융당국은 은행장(법인장)이 대출심사위원회에 포함되는 것을 허용하지만 변 법인장은 대출심사부서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대출심사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 본점 직원 300명 중 70명이 대출심사역이다. 변 법인장은 “인도네시아에는 신용 데이터가 부족해 대출심사역을 많이 뒀다”며 “CEO(최고경영자)로서 성과로 평가받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생존하려면 열심히 공격(영업)도 해야 하고 수비(위험관리)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금융 확대...동반진출 그룹사와 시너지 기대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의 자산에서 개인금융(리테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1%대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모두 기업금융이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현재 거래 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신용대출 등을 시행하

며 개인금융도 조금씩 키우고 있다.

앞으로 모바일뱅킹 등 디지털금융을 확대해 개인금융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1위 은행인 만드리는은행의 지점수 2400개와 비교하면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의 지점수는 60개에 불과해 디지털금융 확대는 개인금융을 늘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1만5000여개의 섬으로 이뤄져 전국적인 점포망 구축이 어려워 국가 정책적으로도 디지털금융을 적극 장려하고 있다.

신한인도네시아은행은 인도네시아에 함께 진출한 신한금융투자, 신한카드 등 그룹사와 함께 시너지 영업도 기대하고 있다.

예를 들어 현지 기업 대출을 유치하면서 기업공개(IPO)를 주선해줄 수 있고 종업원 대출, 신용카드 발급, 자산관리 등 개인금융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조만간 신한금융투자는 현지 자산운용사를 인수할 계획이다. 신한금융은 인도네시아에서 소비자금융회사(MFI, 마이크로파이낸스회사)와 보험사 등의 인수도 꾸준히 검토하고 있다.

변 법인장은 “인도네시아의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수준이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제2의 신한은행을 만들어보자’는 포부로 현지 은행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은행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 : 머니투데이

ELITE3
SINAR ABADI

가성비 최적의 제품을 공급합니다

공장 유니폼
단체복
골프복
기타

JWjindohwang@gmail.com
0812 1324 1251
021 5518 037

한국 컨설팅
PT. GLOBAL CENTER

20년 전통과 신용의 업체

업무내역

1. 현지 법인설립 (PMA 외국투자법인 및 현지회사)
2. 투자청 업무 (IUT, 고정사업허가 / 주주 및 주식변경, 자본금 증자 및 감자, 업종변경, 주소이전 등)
3. 이타스비자(구 키타스)
4. 온티비자(란시아 비자)
5. Property (부동산)

카카오톡 ID: kitas 이메일 : ptgcc@hanmail.net
Tel : 021-5577-6454, 021-5524-236
위치 : 땅그랑 리브 가라와치 루포 피낭시아내
신축상가 엑셀리스 NO 18 (명가식당앞 상가)